

요시다 지장존상

요시다 지적(地籍) 19번 국도에서 서쪽으로 분기하는 마을 길을 올라간 곳에 지장당이 있고, **시계쓰안(指月庵)**이라 불린다. 정면 폭 2칸 반, 안쪽 길이는 2칸인 건물이다.

본존은 지장보살이며, 좌우에 대일여래(大日如来)와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을 모시고 있다.

지장존은 조쿄 2년(1685)에 이 지역의 나카무라 노부요시(中村延義) 씨의 조상 소베(小兵衛)가 밭을 경작하던 중 발굴했다고 하며, 그 후 겐로쿠 7년 5월경에 같은 장소에서 대일여래상과 허공장보살상이 발굴되었다는 것이 안에에 9년(1780) 지월암기(指月庵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근 지명에 '절 위(寺上)', '불택(仏沢)'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 절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쇼와 초기 농사일을 하던 중에 같은 장소에서 **팔릉경(八稜鏡, 청동거울)**이 출토되었다.

이 팔릉경은 어느 시기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거의 같은 것이 현내 야사카무라(八坂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중국식 거울에서 일본거울로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장존은 영험하며, 특히 순산을 비는 지장보살로 인근에서 추앙을 받고 있다. 제례는 4월 24일에 열리는데, 매월 23일 밤에는 지역 여인들에 의한 지조코(地藏講, 지장보살의 공덕을 기리는 법회)가 열린다.

'기소무라 문화재 탐방'

(1986.3.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에서